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의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 비교

Comparison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of Korean and American Adolescents

호서대학교 청소년문화·상담학과

조 교수 주은지*

Dept. of Youth Culture and Counseling, Hoseo Univ.

Assistant Professor : Joo, Eun-jee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different cultures affect attachment style by comparing Korean and American adolescents, with a focus on parent attachment and peer attachment. Data were collected from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291 Korean adolescents, 158 American adolescents), and the participants were asked to report on the revised version of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IPPA-R). The analysi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on both parent and peer attachment between Korean and American adolescents: Korean adolescents had more negative relationships with their parents compared to American adolescents. In contrast, Korean adolescents had more positive relations(high trust and communication score, low alienation score) with their friends than American adolescents. More result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attachment style and socio-environmental variables were presented, and each of these results could be interpreted by cultural difference. Based on these results, parent-child programs and peer programs that can enrich the relationships that a child has with his or her parents and friends were introduced for researchers, educators, teachers, and counselors. The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also presented.

▲주요어(Key Words) : 부모 애착 (parent attachment), 또래 애착 (peer attachment), 한국 청소년 (Korean adolescents), 미국 청소년 (American adolescents)

I. 서론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자신이 태어난 사회에서 제대로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타인과 관계를 맺고 어울리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과 역량의 발달이 필요하다. 황창순(2006)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기술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애착의 형성이라고 하였다. 애착이란 사랑하는 대상을 가까이 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행동을 말하며, 영국의 정신과의사이자 아동정신분석학자인 존 볼비(J. Bowlby)는 이를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매우 강력하고 지속적인 감정적 유대관계'라고 정의하였다(Bowlby, 1969). 개인의 애착유형은 그 개

인이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에 기본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주은지, 2007) 긍정적인 애착유형으로 분류되는 사람은 타인과 관계를 맺고 관계를 유지하기가 쉬우나, 반대로 부정적인 애착유형의 사람은 타인의 접근이나 관계 형성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게 되면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애착이론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부모 및 또래관계를 설명하는 강력한 이론적 배경이 되고 있다(황창순, 2006).

인간발달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이다. 즉, 아동기에 부모의 권위에 의해 일방적으로 형성이 되는 부모-자녀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성을 향한 관계의 재협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송호창·오윤자, 2006). 청소년기는 또한 극적인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로서 사춘기에 접어든 청

* 주저자·교신저자 : 주은지 (E-mail : jooej@hoseo.edu)

소년들의 인간관계 양상의 변화는 청소년들의 애착 관계에 변화를 가져오므로 청소년기 애착에 대한 연구자들은 청소년들의 부모와 또래에 대한 애착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이시은·이재창, 2005). 첫째, 청소년에게 부모와 또래에 대한 애착이 동일한 비중으로 중요하다는 주장(이시은·이재창, 2005; 장휘숙, 1997; Armsden & Greenberg, 1987; Greenberg et al., 1984)에 의하면 청소년의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 둘 다 이들의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타인와의 관계), 그리고 심리적 안녕(자아 존중감, 심리적 복지, 적응, 생활 만족도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친구에 대한 애착보다 부모에 대한 애착의 질을 높게 평가한 연구들이 있다(유안진 외, 2005; 유안진 외, 2006b; 지수경, 2001; McCormick & Kennedy, 1994; Nada-Raja et al., 1992). 청소년기에도 부모는 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자신의 세계를 넓혀감에 있어 안전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며 부모와의 안정애착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와 관련된 불안, 우울, 정서적 혼란 등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영남, 2008). 셋째, 청소년기에 부모에 대한 애착은 약화되는 반면 또래와의 애착은 커진다는 연구(김경숙·박미금, 1999; 육정, 1998)가 있다. 청소년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또래관계는 높은 자기 존중감과 만족도, 심리적 복지, 그리고 적응 등의 영역에 중요하고 적접적인 영향을 준다. 마지막으로, 성별과 연령에 따라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이 시은·이재창, 2005)도 있고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이 청소년들의 심리적 적응과 안녕감의 서로 다른 차원에서 기여한다(고영남, 2008)고 주장하기도 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의 상대적 영향력은 서로 상반된 연구결과들을 보이고 있어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애착은 여러 가지 인구학적 변인들(성별, 연령, 형제 수, 출생순위 등)과 관계가 있다. 대다수의 연구들은 그 중에서도 성(고영남, 2008; 송호창·오윤자, 2006; 황창순, 2006; Cotterell, 1992), 연령(육정, 1998; 유안진 외, 2006a; 주은지, 2007; Montemayor, 1983), 이성관계의 여부(주은지, 2007; Brennan & Shaver, 1993), 부모의 결혼상태(주은지, 2007; Brennan & Shaver, 1993; Hazan & Shaver, 1987; Summers et al., 1998; Woodward et al., 2000)에 대한 청소년들의 애착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일관성 없는 연구 결과들을 제시하였다. 게다가 아직까지 애착연구에서 문화요인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문화의 청소년들이 보이는 애착양상을 비교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세계 각국의 모든 청소년들이 타인들과 같은 형식으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다. 개인차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문화에 따라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성과의 관계 등이 다르다. 무엇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청소년과 미국 청

소년의 부모와 또래 애착유형을 비교한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기본적으로 미국 청소년들의 부모 관계와 또래 집단의 모습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또래 집단의 모습은 많은 부분들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청소년기가 지니는 공통적인 특징에 기인한다(김정규, 2009).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나라 청소년들의 모습에서 상당한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김정규, 2009). 두 국가의 청소년들은 문화적인 차이(동양과 서양)로 각각 다른 유형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또래 애착유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인들에게 청소년기는 성인이 되어 모든 것에 책임을 지기 전에 인생을 최대한으로 자유롭게 즐겼던 때이고, 학교생활도 그러했다고 기억하나 한국의 경우는 아마 이것과는 정반대일 것이다. 인생에서 최대한 자유로웠던 시기이기보다는 가장 억압받았고, 즐거웠던 기억보다는 고통스러웠던 시기로 기억된다 김정규(2009)는 추측한다. 즉, 일반사람들이 청소년기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한국과 미국은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와 친구의 역할도 형식은 같을지라도 내용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 부모는 청소년들의 지나친 자유를 통제하는 동시에 미래를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학업을 강조하지만 청소년기에 누려야 할 인생의 즐거움을 무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의 부모는 청소년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인내하기를 강조한다. 밝은 내일을 위해서는 오늘 참고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청소년들의 삶에서 오늘은 내일을 위한 삶일 뿐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즐거움은 없고 청소년기는 인고의 시간으로 상징화된다(김정규, 2009). 이렇게 두 사회의 모습을 과장해서 극단화시켜 본다면 한국과 미국에서 청소년들의 또래 관계의 본질도 다를 가능성이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다문화(다민족) 국가로써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사회화 과정에서의 또래관계의 역할은 매우 다양하고 역동적일 수 있다. 미국 청소년들은 십대에 들어서면서 또래 집단과 함께 하는 시간이 급격히 늘고 그들과의 관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늘게 되면서(Richards, Crowe, Larson, & Swarr, 2002) 상대적으로 부모와 보내는 시간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Buhrmester & Carbery, 1992; Larson et al., 2002; Savin-Williams & Berndt, 1990). 시간적인 양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지만 질적인 면에서도 달라진다. 즉, 부모와 또래 친구들과의 대화하는 방식과 내용이 달라진다(Youniss & Smollar, 1985; Wang, Peterson, & Morphey, 2007). 일정한 나이(약 18, 19세)가 되면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당연시 되어 부모에게 덜 의존하고 소원한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크며 방과 후에도 개인적인 여유시간이 많아서 친구들 취미생활과 운동을 하거나 학교 내에서 공동 프로젝트, 협동 학습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어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을 많이 하고, 이성과의 교제가 개방적인 서구 문화의 대표적인 미국 청소년들이다(주은지, 2007).

오늘날 우리 사회도 다양한 가족구조, 다문화(다인종, 다민족) 가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김정규, 2009).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지금까지와 다른 더욱 다양한 부모, 또래 관계를 만들어 나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동양문화의 대표적인 한국 청소년들의 부모로부터의 독립은 직장을 가지거나 결혼을 하고나서야 이루어지므로 20대 이전에 신체적, 재정적, 심리적 독립을 하는 미국의 청소년들보다 부모에게 더 오래, 더 의존하고,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안진 등(2006a)은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또래에 더 많이 애착을 형성한다고 하면서 이는 비록 우리나라 중학생 보다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도 입시라는 경쟁 속에서 또래들 간의 친밀한 관계 형성에 투자할 시간이 더 적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한국의 독특한 입시문화 풍토로 인해서 비록 양적으로 많은 시간을 친구들과 보내지만 이들과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친구들을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많으므로 질적인 면에서 또래와의 관계는 미국 청소년들에 비해 소원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애착유형에서 국가 간 혹은 문화 간의 차이를 봄으로써 애착 유형에서의 문화 간 다양성을 이해하는 첫걸음으로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또한 미국 청소년들의 부모와 친구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Furman과 Simon(1999)에 의하면, 초기의 부모-자녀 간의 애착이 또래 간의 관계, 그리고 후의 낭만/성인 애착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또래와의 관계 또한 낭만적인 관계나 일반적인 대인관계를 보는 관점까지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청소년기의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을 살펴봄으로써 후에 이들이 살아가면서 맺게 되는 이성과의 애착이나 일반적인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소나마 예측할 수 있게 된다. 부모나 친구들과 불안정한 애착유형을 보이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거나 적절한 상담이 초기에 개입되면 이들도 건전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주목적은 한국의 청소년과 미국의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또래 애착을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한국과 미국 청소년들의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의 상관관계는 전반적으로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은 국가 성별, 학교급, 부모결혼유형, 이성교제여부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이 성별 학교급, 부

모결혼유형, 이성교제여부에 따른 국가간 차이가 있는가?

II. 선행연구 고찰

1. 청소년 애착

1) 애착 이론

애착 이론(attachment theory)은 본질적으로 Bowlby(1969, 1973, 1980)의 '애착과 상실(Attachment and Loss)'이란 시리즈의 책에 의해 체계적으로 확립되었다. 그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선천적으로 자신을 돌보는 사람과 안정적인 애착을 갖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고 만약 이 안정성에 위협을 받게 되거나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면 아이는 애착행동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Joo, 2005). 일반적으로 애착 대상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때 '안정 애착(secure attachment)'이라 할 수 있고, 애착대상에게 강렬한 의존성, 거절에 대한 두려움, 과민성, 경계 등의 혼합된 감정을 느끼는 상태를 '불안정 애착(insecure attachment)'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애착의 종류는 애착의 대상에 따라 부모 애착(parent attachment), 또래 애착(peer attachment), 그리고 낭만 애착(romantic attachment) 등이 있다.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는 애착유형으로는 안정(secure), 불안정-저항(anxious-ambivalent), 불안정-회피(anxious-avoidant), 몰두(preoccupied), 거부(dismissing), 두려움(fearful) 애착 등이 있다.

초기의 애착 연구는 주로 부모와 유아 또는 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되었다. Ainsworth와 동료들(Ainsworth et al., 1978)은 Bowlby의 애착이론을 유아에게 적용한 "낯선 상황(strange situation)" 실험"을 통해서 안정, 불안정-저항, 그리고 불안정-회피의 세 가지 유아 애착유형을 분류하였다. 그 후에 Hazan과 Shaver(1987)가 Ainsworth 외(Ainsworth et al., 1978)의 세 가지 유아 애착유형을 성인에 적용하였다. 안정된 애착유형의 성인은 다른 사람들을 쉽게 신뢰하고, 가깝게 다가가고, 사랑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불안정-저항의 사람들은 파트너와 완전히 몰두되기를 바라고,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자기의 심도 많다. 마지막으로 불안정-회피형의 성인은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가까이 다가가는 게 불편하고 그들과 친밀해 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Bartholomew(1990)는 애착모델을 자신(자아모델)과 타인(타인모델)에 대한 두 개의 축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어떠한 표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네 가지 애착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안정된 사람(긍정적 자아와 타인)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 여기며 타인을 접근

가능하고 반응적이라고 기대하고, 몰두된 유형(부정적 자아, 긍정적 타인)은 타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자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거나 무가치하게 평가한다. 샛째로 거부적인 유형(긍정적 자아, 부정적 타인)은 자신에 대해서는 높은 가치를 두나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거부한다. 마지막으로 두려움 유형(부정적 자아와 타인)은 자신과 타인에 무가치감을 보인다(Joo, 2005). 청소년 애착유형의 가장 대표적인 측정도구는 Armsden과 Greenberg(1987)에 의해 제작된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IPPA: 부모와 또래 애착 척도)이다. 이는 청소년-부모, 또래간의 상호신뢰와 의사소통, 소외감의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었다. 신뢰는 서로 믿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말하며, 의사소통은 자신의 정서와 생각에 대해 주고받는 행위이다. 또한 소외감은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2) 청소년기 발달적 측면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심리적 변화가 급격한 시기일 뿐만이 아니라 부모 그리고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심오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다(주은지, 2007). 즉, 청소년들과 이들의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큰 변화가 일어난다.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자기 정체성과 자율성을 찾으려는 시기이면서(Joo, 2007), 사회적 관계에서 또래 집단의 중요성이 급속히 증가되는 시기이다. 청소년 시기에는 가정에서 부모와 실제 생활하는 시간보다 상대적으로 친구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서 이들과의 관계는 청소년의 여러 적응 분야에서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유안진 외, 2005). 대부분의 청소년은 계속 부모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특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 또는 보장받고 싶어 한다. 단지 청소년에게 새로운 애착대상들(이성 친구, 선생님, 그 외)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부모는 청소년 자녀의 주요 애착대상에서 서서히 그 위치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주은지, 2007).

Larson과 연구자들(Larson & Richards, 1991; Larson et al., 1996)은 청소년기에 이들에게서 '이탈'과 '변화'의 두 측면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35%에서 14%로 감소하는 것은 곧 부모로부터의 '이탈' 또는 멀어짐을 의미한다. 가족들과의 질적인 상호관계에서 부모와 이성 문제 등 민감한 문제들에 관한 대화를 하는 것과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청소년들이 의사소통을 주도하는 것은 전보다 늘어 '변화'를 보였다.

요약하면, 청소년기에는 이들과 부모와의 관계가 덜 중요해지는 것이라기보다 부모에게 덜 의지하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자립심을 찾아가면서 또래 친구들을 애착대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다. 또래와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많은 활동들을 같이 하

게 되면서 이들과의 상호작용도 많아진다. 다시 말해, 청소년기는 부모와의 애착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래와의 애착으로 점차 전환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Joo, 2005).

3) 부모 애착

부모에 대한 애착의 질을 또래보다 높다고 평가한 연구들이 있다(유안진 외, 2005; 지수경, 2001). 청소년기에도 부모는 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자신의 세계를 넓혀감에 있어 안전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며 부모와의 안정애착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와 관련된 불안, 우울, 정서적 혼란 등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영남, 2008). 따라서 부모에 대한 애착은 자아정체감이나 타인과의 안정적 관계형성에 기여한다. 애착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높은 자존감과 생활 만족도, 낮은 스트레스 수준(유안진 외, 2006b; Bradford & Lyddon, 1993)을 보이고, 더 독립적이고, 자립적이 되는데 있어서 부모를 안정 기반으로 두고 또래와의 관계나 일반적인 대인관계 등으로 확장해 간다. 또한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과 안녕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McCormick & Kennedy, 1994), 우울, 불안, 스트레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Nada-Raja et al., 1992)으로 밝혀졌다. Raja, McGee와 Stanton(1992)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정신건강, 적응과 심리적 복지를 가늠하는데 있어서 부모와 안정된 관계를 가지는 것이, 즉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을 갖는 것이 또래와의 안정된 애착을 가지는 것 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고 했다.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은 청소년의 진로 발달이나 진로 성숙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박효희·성태제, 2008; Lee & Hughey, 2001). 반대로 부모와 불안정한 애착유형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낮은 자아 개념과 문제시되는 중상들을 보이고,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더 위험성 높은 행동들(risk-taking behaviors)에 참여한다(Cooper et al., 1998).

4) 또래 애착

부모와의 관계 이외에도 발달단계상 청소년의 발달에 큰 영향을 주는 관계는 또래 및 친구관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속담의 '부모 팔아 친구 산다'가 시사하는 것처럼 청소년기에 주요 애착의 대상은 부모에서 또래로 이동하여 부모에 대한 애착은 약화되는 반면 또래와의 애착은 커진다.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분리·독립하기 시작하고, 가정에서 부모와 상호작용하는 시간보다 밖에서 친구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서 친구의 중요성이 급속히 증가되는 시기이다(주은지, 2007). 더군다나 친구들이 감정적인 지지와 애착 대상으로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면서 또래에 대한 애착은 이 시기에 더욱 강화된다(Nelis & Rae, 2009). 즉, 청소년기의 애착행동은 부모에서 친구로 확대된다고 볼 수 있다.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청소년의 또래관계는 이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이며(김경숙·박미금, 1999), 청소년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또래관계는 높은 자기 존중감과 만족도, 심리적 복지, 그리고 적응 등의 영역에 중요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옥정, 1998), 친구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애착이 잘 형성될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아 진로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김아름·이지희·최보영, 2010). Laible과 동료 연구자들(Laible et al., 2000)은 청소년기에는 친구들이 부모 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면서 청소년의 높은 자존감과 생활 만족도에 부모와의 관계가 또래와의 관계보다 더 강력한 관계가 있다는 대부분의 연구들과 상반된 관점을 보였다. 물론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의 둘 다에서 높은 애착을 보인 청소년들이 가장 잘 적응하고, 반대로 둘 다 낮은 애착을 보인 그룹은 가장 적응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친구들과 안정되나 부모와 덜 안정된 애착을 보인 청소년들이 그 반대 경우보다 모든 면에서 좀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안정 또래 애착과 불안정 부모 애착이 안정된 부모 애착, 불안정한 또래 애착을 보이는 청소년들 보다 적응을 잘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부모와 또래에 대한 애착의 상대적 중요성(이시은·이재창, 2005)에 대해 어느 한 대상이 중요하다기보다 청소년에게 부모와 또래에 대한 애착이 동일한 비중으로 중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청소년의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에 관한 연구 결과(Armsden & Greenberg, 1987; Greenberg et al., 1984)를 보면 부모 및 또래 애착의 안정성이 높을수록 자존감,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우울, 불안, 죄의식, 분노, 소외, 자기개념의 혼란이 낮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은 이들의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타인와의 관계), 그리고 심리적 안녕(자아 존중감, 심리적 복지, 적응, 생활 만족도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부모에 대한 애착이 청소년기에도 그대로 지속되고 부모에 대해 높은 애착을 갖는 청소년들이 또래에 대해서도 높은 애착을 갖는 경향성이 있다고 하였다(장희숙, 1997). 그 외에도 성별과 연령에 따라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이시은·이재창, 2005)도 있고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이 청소년들의 심리적 적응과 안녕감의 서로 다른 차원에서 기여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고영남, 2008; Paterson et al., 1995).

청소년의 애착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IPPA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청소년과 부모와의 애착 그리고 또래와의 애착을 측정하였다. 많은 연구들이 청소년의 복지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과연 부모 애착인지 혹은 또래 애착인지를 살펴보았다. 물론 부모 그리고 또래 애착 둘 다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청소년의 복지에 부모와의 애착이 또래와의 애

착보다 더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반면에 청소년의 발달에 있어서 각기 다른 면에 부모와 또래 애착 둘 다 기여한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이렇게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이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불일치함을 보여주므로 더 많은 연구들이 필요하다.

2. 애착과 관련된 변인

관련 변인들(성, 연령, 이성관계 여부, 부모의 결혼유형)과 청소년의 애착에 대한 연구를 보면,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여학생의 적응은 또래 애착보다 부모 애착과 더 밀접하게 관계가 있었지만, 남학생은 부모 애착보다 또래 애착과 더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연구(Cotterell, 1992)와는 다르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또래를 높게 지각하고 있다는 연구(고영남, 2008; 유안진 등, 2006a; Claes, 1992; Hay & Ashman, 2003)와 부모 애착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연구(고영남, 2008)가 있다. 미국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Ma와 Huebner(2008)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 애착에 대한 성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서 또래에 대한 애착이 높았다. 황창순(2006)과 Cross와 Madson(1997)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부모나 친구에게 더 깊은 애착관계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Nelis과 Rae(2009)의 연구에서는 또래 애착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부모 애착 및 또래 애착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좀 더 명백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연령과 청소년의 애착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기에 부모와의 충돌은 청소년 초기에 가장 높고, 중기는 안정되고, 청소년 후기에 줄어든다고 하면서 나이와 부모 애착이 관련 있음을 뒷받침해주는 주은지(2007)와 Montemayor(1983)의 연구가 있다. 이와는 다른 양식으로 부모 애착 정도는 후기 아동에서 초기 청소년으로 성장하면서 낮아진다고 하였다. 청소년기에 들어가면서 부모 이외의 애착대상을 새롭게 발견하고 부모와의 갈등이 증대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황창순, 2006). 또래 애착에 있어서 저 연령이 나머지 연령대의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신뢰감과 낮은 소외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안진 외, 2006a; 주은지, 2007).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또래에 대해 더 많이 애착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교우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도 입시경쟁 속에서 또래들 간의 의사소통이나 친밀한 관계에 헌신할 시간이 더 적기 때문이라고 보았다(유안진 외, 2006a). 하지만 옥정(1998)과 황창순(2006)은 청소년의 또래 애착은 나이와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의 청소년기 사이의 부모 애착 및 또래 애착의 변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황창순, 2006).

셋째, 이성관계의 여부는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에 있어서 유의한 관계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주은지, 2007)와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Brennan과 Shaver(1993)의 연구가 있다. 안정형 애착유형을 보인 사람은 가장 많은 이성관계가 있었으며, 다음으로 저항형, 그리고 회피형을 가진 사람들은 가장 적은 이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결혼유형은 청소년의 애착유형과 관계가 없다고 보고한 Hazan와 Shaver(1987)와 Brennan과 Shaver(1993)의 연구가 있는 반면 대부분의 연구들(주은지, 2007; Summers et al., 1998; Woodward et al., 2000)은 부모의 결혼상태가 청소년의 부모 애착뿐만 아니라 이성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즉, 부모가 결혼한 상태인 청소년들은 부모와 긍정적인 관계(높은 신뢰, 높은 의사소통)를 경험하고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낭만 애착을 보이나 반대로 부모의 별거 또는 이혼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부정적인 부모 관계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성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보인다.

3.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애착 특성

일반적으로 미국 청소년들은 16세 - 18세가 되면 서서히 부모로부터 신체적, 재정적, 정서적·심리적으로 독립하기 시작한다. 대부분 18세가 되거나 대학을 진학하면 부모의 품을 떠나 혼자서, 룸메이트(roommate)와, 혹은 이성과의 동거를 통해서 부모로부터 신체적 독립을 선언한다. 이들은 동네의 아이 돌보기(babysitting), 패스트푸드(fastfood)점에서 일하는 등 아르바이트(part-time job)로 자신의 용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재정적으로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준비한다. 동시에 자신의 의사결정과 미래의 계획 등에 대해서도 부모에게 덜 의존하고 스스로 개발하고, 탐구하며,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한다. 이를 뒷받침한 주은지(2007)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관계 보다 친구와 좀 더 긍정적(높은 신뢰, 높은 의사소통, 낮은 소외감)이라고 보고했다. 미국 청소년들은 십대에 들어서면서 또래 집단과 함께 하는 시간이 급격히 늘게 되는데, 부모와 보내는 시간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Larson과 동료들(2002)의 연구에 의하면 9학년의 경우 5학년 때와 비교해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반으로 줄어들고, 9학년에서 12학년까지는 더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고 한다. 13세에서 16세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Buhrmester & Carbery, 1992)에 따르면, 미국 청소년들은 부모와 평균적으로 하루에 28분 정도를 상호작용하고 있지만 친구들과는 103분을 함께 지낸다고 하여 실

제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보다 약 4배나 많은 시간을 친구들과 함께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는 일본과 같은 다른 문화에 속한 청소년들과 비교해 봐도 훨씬 더 많은 것이다(Savin-Williams & Berndt, 1990). 시간적인 양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지만 질적인 면에서도 달라진다. 즉, 부모와 또래 친구들과의 대화하는 방식과 내용이 달라진다(Youniss & Smollar, 1985; Wang, Peterson, & Morphey, 2007). 부모와의 대화는 주로 장래 직업이나 계획, 원활한 학교생활 등과 관한 것이지만 친구들과의 대화는 일상적인 라이프스탈일이나 잡담과 가십거리가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대화방식에 있어서 부모와는 직접적이고 부모가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친구들과의 대화는 간접적, 상호의존적, 개방적이면서 자유롭다. 하지만 Chadwick과 Heaton(1996)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 청소년들은 대체로 부모와의 대화에 만족하고 있었다. 청소년의 과반수가 부모와 문제점들을 상의하고, 부모가 자신의 의견을 존중하며, 자신에게 중요한 일에 부모가 잊지 않고 참여한다고 응답하였다.

미국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 밖에서 어울릴 수 있는 청소년 또래 집단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기가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상당히 용이하다(김정규, 2009).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대부분 또래 집단의 형성과 만남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밖에서의 여가 활동이 미국과 비교해서 제한된다. 이것은 미국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방과 후 개인적인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또래 집단과 보내는 시간의 정도는 또래 집단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관계의 양이 커지면 그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김정규, 2009). 미국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관계와 친구와의 관계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절친한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부모와의 관계가 아주 소원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여, 오히려 부모와의 관계가 돈독한 청소년들일수록 친구와의 관계도 더 돈독하게 발전시켜 나간다(Ducharme, Doyle, & Markiewicz, 2002; Furman & Buhrmester, 2002). 부모를 신뢰해서 자신의 일을 의논하는 관계를 가지는 청소년들일수록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부모와의 관계와 유사한 질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김정규, 2009).

반면에 미국과 다른 문화권에 속한 대부분의 한국 청소년들은 대학을 진학하고, 졸업하고, 혹은 취직하기 이전까지 부모로부터 신체적, 재정적으로 의존한다.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고 원가족을 떠나 자신의 가정을 꾸리지 전까지도 냉정하게 부모로부터 독립을 한다고 보기 힘들다. 2008년 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12세 - 18세)의 69.5%가 하루에 2시간 미만으로 부모와 대화를 하고 있고 대화의 주제 중 공부와 성적이 37.3%

와 진로가 22.2%로 절반이상을 차지하였다. 청소년 중 절반 이상(50.1%)이 자신의 고민에 대해 부모와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했고, 여자(42.7%)보다 남자(56.7%)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3학년일 때(43.9%) 가장 대화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009년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조사). 또한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자신에 대한 부모의 이해도가 낮다고 생각한다(2009년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조사). '나의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 하신다'의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 청소년(27.7%)이 중국(36.2%)나 일본(29.6%)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독특한 대학입시 문화로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는 시간은 개인의 여가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미국 청소년들보다 많을 수는 있다. 하지만 한국의 명문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의식을 부추기는 풍토로 인해 친구들이 경쟁자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또래와 의사소통을 적게 하고 또래 간 협력과 개방보다는 경쟁과 폐쇄성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유안진 외, 2006).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한국의 청소년들은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지역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미국의 청소년들은 오하이오 주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최종분석에서는 한국 청소년 291명, 미국 청소년 158명이 사용되었다.

한국 청소년들의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공주시 소재의 2개의 중학교와 2개의 고등학교의 해당 학교 선생님들에게 먼저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하여 협조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설명 한 후 질문지로 조사하였는데, 연구자가 직접 방문한 경우는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으며, 선생님을 통한 경우는 이 후에 회수하였다. 총 314부가 회수 된 후 부실기재를 제외하고 총 291명의 응답자를 수집·분석하였다. 비교대상의 동질성을 고려하여 미국 청소년들도 중소도시인 오하이오 주의 그린빌(Greenville)과 베세일(Versailles)에 소재한 1개의 중학교와 1개의 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들에게 연구에 대한 설명과 협조를 구하는 이메일을 보내고,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각 가정교과(Family and Consumer Sciences) 수업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협조를 얻어 이메일과 전화통화를 통해서 실시되었다. 질문지는 우편을 통해서 실시하여 배포한 총 165부의 질문지 중 161부가 수거되어 이 중 응답이 부실한 3부를 제외한 158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미국 청소년들의 연구 대상자는 대부분이 백인(92.5%)이었으며, 흑인이 1.9%의 분포를 보였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응답자 중 한국의 청소년은 남자 186명(63.9%), 여자 105명(36.1%)이었고, 미국의 청소년은 남자 45명(28.5%), 여자 113명(71.5%)이었다. 한국 청소년의 연령분포는 14세부터 18세에 이르며, 평균 연령은 15.6세($SD=1.04$)였으며, 이를 중 50.2%가 중학생, 49.8%가 고등학생이었다. 미국 청소년의 연령분포는 14세부터 19세에 이르며, 평균 연령은 16.1세($SD=1.32$)

<표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단위: 명(%)

항목	한국 청소년 n=291	미국 청소년 n=158	전체 N=449
성별	남 여	186(63.9) 105(36.1)	45(28.5) 113(71.5)
나이	14 15 16 17 18 19	45(15.5) 104(35.7) 81(27.8) 53(18.2) 8(2.7) 0(0.0)	5(3.2) 69(43.7) 26(16.5) 22(13.9) 32(20.2) 4(2.5)
학교급	중학교 고등학교	146(50.2) 145(49.8)	79(50.0) 79(50.0)
부모	결혼	265(91.1)	88(55.7)
결혼 상태	그 외(별거, 이혼, 사별) 무응답	20(6.9) 6(2.1)	69(45.7) 1(0.6)
이성 친구 유무	유 무	52(17.9) 239(82.1)	80(50.6) 78(49.4)

였으며, 이들 중 50%가 중학생, 50%가 고등학생이었다. 한국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부모가 결혼(91.1%)했다고 보고했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성친구가 없다고 응답했다 (82.1%). 미국의 청소년들 중 55.7%가 부모가 결혼했다고 보고했으며, 45.7%가 그 외(미혼, 별거/이혼, 사별)로 응답했으며, 이성친구가 있다고 보고한 학생(50.6%)과 없다고 보고한 학생(49.4%)의 비율은 비슷하였다.

2. 측정도구

1) 종속변인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87)가 개발한 총 60문항의 부모 및 또래 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를 Raja 외(1992)가 수정한 총 12문항의 개정본(IPPA-R)을 미국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한국 청소년들에게는 이를 옥정(1998)이 한글로 번안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IPPA-R은 부모와 또래에 대한 정의적, 인지적, 행동적 측면의 애착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도구로 세 가지 하위영역(신뢰, 의사소통, 소외)은 각 4문항,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 영역은 “우리 부모님은 내 감정을 존중해 주신다,” “나는 내 친구들을 신뢰한다” 등, 언어적 의사소통의 정도와 질을 측정하는 의사소통 영역은 “나는 부모님께 내 어려움과 근심거리에 대해 말씀 드린다”, “나는 내 어려움이나 근심거리를 친구들에게 이야기한다” 등, 마지막으로 소외 영역은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별 관심을 받지 못한다,”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도 마치 혼자 있거나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평정(“거의 항상 그렇다”는 1점, “거의 항상 그렇지 않다”는 5점)된다.

Armsden과 Greenberg(1987)가 보고한 세 가지 하위영역의 부모에 대한 애착의 Cronbach's alpha는 소외영역의 .86에서 의사소통과 신뢰의 .91로, 그리고 또래에 대한 애착 척도는 소외 영역의 .72에서 신뢰 영역의 .91사이의 신뢰로운 측정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 애착의 의사소통과 또래 애착의 소외 영역의 문항 중 각 한 문항을 삭제하여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한국 청소년의 부모 애착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신뢰 .71, 의사소통 .62, 소외에서 .73, 미국 청소년의 부모 애착 신뢰도는 신뢰 .88, 의사소통 .78, 소외 .65이었으며, 한국 청소년의 또래 애착 Cronbach's α 는 신뢰에서 .66, 의사소통 .78, 소외 .60, 미국 청소년의 또래 애착은 신뢰에서 .79, 의사소통 .72, 소외에서 .65의 신뢰도를 나타났다.

2) 독립변인의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인으로는 국가, 성별, 학교급, 부모결혼 유형과 이성친구 여부가 사용되었다. 먼저 국가는 한국은 1, 미국은 2로 코딩하였으며, 성별은 남학생은 1, 여학생은 2로, 학교급은 중학생은 1, 고등학생은 2로 코딩한 값을 사용하였다. 부모결혼 유형은 결혼은 1, 그 외(동거, 별거, 이혼, 사별)는 2, 그리고 이성교제 여부는 “당신은 현재 이성친구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요”로 응답한 학생은 0, “네”는 1로 코딩하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되었다. 자료의 기본적인 분석은 빈도(N), 백분율(%), 평균(M), 표준편차(SD)를 이용하였다.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의 변인들 간의 상관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하였다. 청소년의 국가, 성별, 학교급, 부모결혼 유형, 이성친구 유무에 따른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의 각 하위영역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증(t-test)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별, 학교급, 이성관계 여부, 그리고 부모의 결혼여부에 따른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의 국가 간(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경우는 단순 주효과분석을 실시하여 국가 간의 차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알아보았다.

IV. 연구결과

1.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간의 관계

한국과 미국 청소년들의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를 산출하였으며 결과는 <표 2>와 같다. 한국 청소년이나 미국 청소년의 비교적 유사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구체적으로 부모 애착 내에서의 그리고 또래 애착 내에서의 각 하위영역들(신뢰, 의사소통, 소외)은 서로 높은 상관을 보이나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간의 각 하위영역들 간에는 상관이 유의미하지만 비교적 낮은 상관을 보인다.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신뢰감과 의사소통 간에는 정적인 관계(각 $r=.635$, $p<.01$; $r=.714$,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에 대한 신뢰감이 높을수록 의사소통의 양과 질도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부모의 신뢰감과 소외감 간에는 한국 청소년의 $r=-.43$ ($p<.01$)과 미국 청소년의 $r=-.664$ ($p<.01$),

<표 2>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 간의 상호상관관계

부모 애착	부모 애착			또래 애착		
	신뢰	의사소통	소외	신뢰	의사소통	소외
부모 애착						
신뢰	-					
의사소통	.635**	-				
소외	-.430**	-.288**	-			
또래 애착						
신뢰	.058	.055	-.165**	-		
의사소통	.052	.184**	-.074	.499**	-	
소외	-.111	-.097	.240**	-.462**	-.273**	-
부모 애착						
신뢰	-					
의사소통	.714**	-				
소외	-.664**	-.597**	-			
또래 애착						
신뢰	.277**	.226**	-.238**	-		
의사소통	.253**	.354**	-.176*	.686**	-	
소외	-.286**	-.230**	.262**	-.673**	-.483**	-

*p<.05, **p<.01

부모의 의사소통과 소외감 간에도 한국 청소년의 $r=-.288$ ($p<.01$)과 미국 청소년의 $r=-.597$ ($p<.01$)로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모에 대한 신뢰감이 높을수록 이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낮아지고, 의사소통이 많으면 소외감 또한 낮다는 것이다. 또래 애착의 각 하위영역들 간의 관계도 부모 애착의 각 변인들 간의 관계와 비슷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하지만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의 각 변인들 간에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비교적 낮은 상관관계가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 모두에게 나타났다. 부모와의 신뢰감이 높을수록 친구들과의 신뢰감도 높고(한국 청소년 $r=.058$; 미국 청소년 $r=.277$, $p<.01$), 부모와 의사소통이 많으면 친구들과의 의사소통도 많고(한국 청소년 $r=.184$, $p<.01$; 미국 청소년 $r=.354$, $p<.01$), 부모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면 친구들로부터도 소외감을 느끼는(한국 청소년 $r=.240$, $p<.01$; 미국 청소년 $r=.262$, $p<.01$)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신뢰감이 높을수록 친구들과의 의사소통은 많고(한국 청소년 $r=.052$; 미국 청소년 $r=.253$, $p<.01$), 이와 비슷하게 친구들과의 높은 신뢰감은 부모와의 의사소통(한국 청소년 $r=.055$; 미국 청소년 $r=.226$, $p<.01$)과 관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친구들로부터 소외감을 느낄수록 부모와의 신뢰감(한국 청소년 $r=-.111$; 미국 청소년 $r=-.286$, $p<.01$)과 의사소통(한국 청소년 $r=-.097$; 미국 청소년 $r=-.230$, $p<.01$)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변인들에 따른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의 비교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에서 변인들(국가, 성별, 학교급, 부모결혼 유형, 이성친구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연령이라는 변인대신 한국 청

소년과 미국 청소년의 분포도가 고르고 유사한 학교급을 사용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1) 국가

청소년의 국적(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에 따라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의 계산은 소외 영역의 점수를 역으로 변환하여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의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애착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의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 청소년들은 긍정적인 영역(신뢰, 의사소통)에서 부모보다 또래에 높은 점수가 보고되었고, 부정적인 영역(소외)에서 또래 보다 부모 사이에 높은 점수가 보고되었다. 반대로 미국 청소년들은 또래보다 부모 애착의 긍정적인 영역(신뢰, 의사소통)에서 점수가 높고 부정적인 영역 면에서는 부모보다 또래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간의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t-test)을 실시하였다 (<표 3> 참조). 부모 애착($t=-3.76$, $p<.01$)과 또래 애착($t=6.56$, $p<.01$)의 전체적인 면에서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미국 청소년($M=2.42$, $SD=0.88$)이 한국 청소년($M=2.12$, $SD=0.69$)보다 부모에 대한 애착이 컸으며, 또래 애착은 이와 반대로 한국 청소년($M=2.84$, $SD=0.44$)이 미국 청소년($M=2.57$, $SD=0.40$)보다 또래와의 애착정도가 높았다. 부모 애착의 하위영역인 소외에서 두 집단 간에, $t=8.04$, $p<.01$,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한국 청소년이($M=4.10$, $SD=0.80$) 미국 청소년에

($M=3.42$, $SD=0.89$) 비해 부모로부터 소외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또래 애착의 세 가지 하위영역 모두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긍정적인 영역인 신뢰($t=8.43$, $p<.01$)와 의사소통($t=4.49$, $p<.01$), 그리고 부정적인 영역인 소외($t=-3.35$, $p<.01$)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한국 청소년들이 미국 청소년들에 비해 친구간의 신뢰와 의사소통이 높고 반대로 소외감은 미국 청소년들이 한국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국 청소년들이 한국 청소년보다 부모와 더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며, 한국 청소년들의 친구와의 관계는 미국 청소년들의 친구관계보다 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2) 성별

남학생과 여학생의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부모 애착의 경우 소외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하위 영역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보고하였고, 또래 애착의 경우 소외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하위 영역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보고하였다. 부모 애착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고($t=-2.45$, $p<.05$), 하위영역은 소외 영역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2.95$, $p<.01$). 또래 애착은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래 애착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고($t=6.47$, $p<.01$), 하위영역은 신뢰($t=5.35$, $p<.01$)와 의사소통($t=6.65$, $p<.01$)

영역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소외 영역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고하였다($t=-2.86$, $p<.01$).

3) 학교급

학교급(중학교, 고등학교)에 따른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부모 애착의 경우 소외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의 점수 모두 고등 학생이 중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래 애착에서는 신뢰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의 점수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 모두에서 학교급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4) 부모결혼 유형

부모결혼 유형에 따른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부모 애착 중 소외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부모가 결혼한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래 애착의 경우 소외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부모가 결혼한 경우에 더 높은 점수를 보고하였다. 부모 애착의 경우 부모가 결혼한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애착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t=-3.69$, $p<.01$). 부모 애착의 하위 영역은 신뢰($t=-2.20$, $p<.05$)와 의사소통($t=-2.54$, $p<.05$)의 경우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경우에 유의미하게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소외는 부모가 결혼한 경우에 유의미하게 더 높은 점

<표 3>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

($N=4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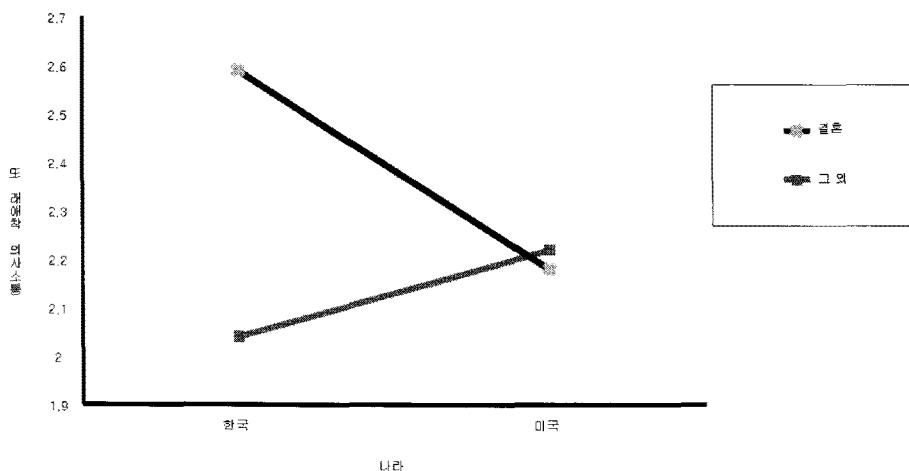
변인	부모 애착				또래 애착				
	전체 M(SD)	신뢰 M(SD)	의사 M(SD)	소외 M(SD)	전체 M(SD)	신뢰 M(SD)	의사 M(SD)	소외 M(SD)	
국 가	한국(n=291)	2.12(0.69)	2.09(0.79)	2.51(0.94)	4.10(0.80)	2.84(0.44)	2.32(0.70)	2.56(0.83)	3.92(0.74)
	미국(n=157)	2.42(0.88)	2.06(1.04)	2.70(1.11)	3.42(0.89)	2.57(0.40)	1.73(0.70)	2.19(0.79)	4.17(0.80)
	t값	-3.76**	0.26	-1.75	8.04**	6.56**	8.43**	4.49**	-3.35**
성 별	남(n=231)	2.14(0.66)	2.01(0.77)	2.52(0.89)	3.98(0.84)	2.87(0.41)	2.87(0.41)	2.67(0.78)	3.91(0.78)
	여(n=217)	2.32(0.87)	2.16(0.99)	2.64(1.12)	3.74(0.93)	2.61(0.45)	1.92(0.79)	2.17(0.82)	4.11(0.74)
	t값	-2.45*	-1.80	-1.30	2.95**	6.47**	5.35**	6.65**	-2.86**
학 교	중학생(n=225)	2.22(0.73)	2.05(0.85)	2.57(0.98)	3.87(0.83)	2.77(0.44)	2.07(0.79)	2.49(0.82)	4.06(0.76)
	고등학생(n=223)	2.24(0.82)	2.11(0.92)	2.59(1.03)	3.85(0.95)	2.72(0.45)	2.72(0.45)	2.37(0.84)	3.95(0.77)
급	t값	-0.25	-0.74	-0.26	0.24	1.14	-1.09	1.56	1.60
부 모 결 혼	결혼(n=353)	2.14(0.69)	2.02(0.79)	2.51(0.95)	3.99(0.81)	2.78(0.44)	2.16(0.74)	2.49(0.81)	3.98(0.73)
	그외(n=88)	2.55(0.98)	2.30(1.14)	2.85(1.15)	3.36(1.04)	2.59(0.42)	1.86(0.72)	2.18(0.87)	4.12(0.90)
	t값	-3.69**	-2.20*	-2.54*	5.30**	3.50**	3.47**	3.13**	-1.38
이 성 유 무	유(n=131)	2.33(0.93)	2.13(1.07)	2.55(1.10)	3.59(1.01)	2.62(0.42)	1.90(0.75)	2.18(0.78)	4.14(0.75)
	무(n=317)	2.18(0.70)	2.06(0.80)	2.59(0.97)	3.98(0.81)	2.80(0.45)	2.20(0.74)	2.53(0.84)	3.94(0.77)
t값		1.63	0.67	-0.32	-3.87**	-3.98**	-3.98**	-4.10**	2.66**

* $p<.05$, ** $p<.01$

<표 4> 국가와 부모결혼 유형에 따른 또래 애착의 의사소통 영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또래 애착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차승	F
의사소통	국가	0.62	1	0.62	0.93
	부모결혼 유형	3.27	1	3.27	4.96*
	국가*부모결혼 유형	4.35	1	4.35	6.60*
	오차	288.70	438	0.66	

*p<.05, **p<.01



<그림 1> 또래 애착의 의사소통 영역에 대한 청소년 국적과 부모결혼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

수를 보고하였다($t=5.30$, $p<.01$). 또래 애착은 부모가 결혼한 경우에 유의미하게 더 높은 점수를 보고하였다($t=3.50$, $p<.01$). 하위 영역의 신뢰($t=3.47$, $p<.01$)와 의사소통($t=3.13$, $p<.01$)도 부모가 결혼한 경우에 더 높은 신뢰와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이성관계 유무

이성친구 유무에 따른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부모 애착은 신뢰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이성친구가 없는 경우에 더 높은 점수를 보고하였다. 또래 애착은 소외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이성친구가 없는 경우에 더 높은 점수를 보고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 애착의 소외 영역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성친구가 없는 경우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소외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t=-3.87$, $p<.01$). 또래 애착

은 이성친구가 없는 경우에 유의미하게 더 높은 점수를 보고하였고($t=-3.98$, $p<.01$), 하위 영역은 신뢰($t=-3.98$, $p<.01$)와 의사소통($t=-4.10$, $p<.01$)은 이성친구가 없는 경우에 유의미하게 더 높은 점수를 보고하였고, 소외의 경우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에 더 큰 점수를 나타냈다($t=2.66$, $p<.01$).

3. 변인들에 따른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의 국가 간 비교

청소년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에 있어서 관련 변인들의 효과가 국가별로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혹은 국가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여 국가와 관련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부모 애착에서는 관련변인과 국가 간의

<표 5> 국가와 부모결혼 유형에 따른 또래 애착의 의사소통 영역에 대한 단순 주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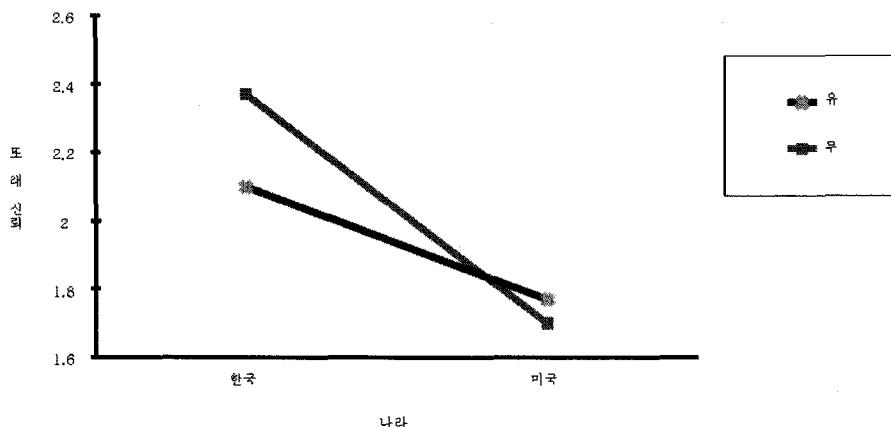
국가	한국	부모결혼유형		t
		결혼 M(SD)	그 외 M(SD)	
국가	한국	2.59 (0.81)	2.04 (0.94)	2.89**
	미국	2.18 (0.75)	2.22 (0.86)	-.31

*p<.05, **p<.01

<표 6> 국가와 이성친구 유무에 따른 또래 애착의 신뢰 영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또래 애착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신뢰	국가	20.51	1	20.51	41.86**
	이성친구유무	0.86	1	0.86	1.76
	국가*이성친구유무	2.26	1	2.26	4.62*
	오차	217.97	445	0.49	

*p<.05, **p<.01



<그림 2> 또래 애착의 신뢰 영역에 대한 청소년 국적과 이성친구 유무의 상호작용 효과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또래 애착에서는 두 변인(부모결혼 유형, 이성친구 유무)과 국가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애착의 의사소통 영역에서 국가와 부모결혼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F=6.60$, $p<.05$)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참고). 이것은 한국과 미국에서 부모결혼 유형간 청소년의 또래 의사소통 정도의 차이가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그림 1>을 보면, 국가별로 그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다. 즉, 한국은 부모가 결혼한 경우에 또래 의사소통 점수가 더 높았지만, 미국의 경우는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경우가 더 높았다.

또래 애착의 의사소통 영역에 대한 국가와 부모결혼 유형 간의 상호작용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단순 주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한국 청소년들은 부모결혼 유형에 따른 또래 애착 의사소통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t=2.89$, $p<.01$), 부모가 결혼한 경우에 또래와 더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청소년들은 부모결

혼 유형에 따른 또래 애착 의사소통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래 애착의 신뢰 영역에서 국가와 이성관계 유무에 따른 상호작용효과($F=4.62$, $p<.05$)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참고). 이것은 한국과 미국에서 이성친구 유무에 따른 청소년의 또래 신뢰 정도의 차이가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그 양상이 국가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그림 2>에 제시하였다. 한국 청소년은 이성친구가 없는 경우에 또래와 더 신뢰로운 애착을 하지만 미국 청소년은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에 또래와 더 신뢰로운 애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애착의 신뢰 영역에 대한 국가와 이성친구 유무 간의 상호작용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단순 주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7>와 같다. 한국 청소년들은 이성친구 유무에 따른 또래 애착의 신뢰 영역에서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t=-2.51$, $p<.05$), 이성친구가 없는 경우에 또래와 더 신뢰로운 애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청

<표 7> 국가와 이성친구 유무에 따른 또래 애착의 신뢰 영역에 대한 단순 주효과 분석

	국가	이성친구 유무		t
		유 M(SD)	무 M(SD)	
국가	한국	2.10 (0.70)	2.37 (0.70)	-2.51*
	미국	1.77 (0.76)	1.70 (0.64)	.57

*p<.05, **p<.01

소년들은 이성친구 유무에 따른 또래 애착의 신뢰 영역에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관련되었다. 즉, 가정에서 부모와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갖는 청소년들은 친구들과도 좋은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부모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는 청소년들은 친구들에 대한 신뢰감과 낮고, 대화도 적고, 그들로부터도 소외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부모와의 유대 관계가 깊고 높은 애착 안정성의 청소년들은 부모를 안정기 저로 사용하여 주위를 탐색하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이들의 심리적 안녕에 결정적으로 기여를 한다는 선행연구(주은지, 2007; Armsden & Greenberg, 1987; Greenberg et al., 1984; Joo, 2005)를 뒷받침한 것이다. 즉 이들 두 애착유형은 서로 깊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둘째, 평균점수로 볼 때 일반적으로 한국 청소년들은 긍정적인 하위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신뢰와 의사소통에서 부모와 또래 애착에서 큰 차이가 없었고, 부정적인 영역인 소외에서는 또래보다는 부모에게서 높은 점수가 보고되었다. 반대로 미국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또래와의 관계보다 부모와의 긍정적인 영역(신뢰, 의사소통)에서 점수가 높았고, 부정적인 영역에서는 부모보다 또래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두 나라 청소년 간에 애착의 차이는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의 전체적인 면에서 유의미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부모 애착의 소외, 또래 애착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한국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 청소년들보다 더 부정적(높은 소외 점수)으로 느낀다고 나타나 본 연구 초반에 제안한 한국 청소년들이 미국 청소년들보다 부모와 더 긴밀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가질 것으로 기대했던 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으며 한국 청소년들의 친구와의 관계는 미국 청소년들의 친구관계보다 좀 더 긍정적(높은 신뢰와 의사소통 점수, 낮은 소외 점수)인 것으로 나타나서 미국 청소년들이 한국 청소년들보다 친구들과 더 가깝고 긍정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도 거부한다.

한국 청소년들의 부모 애착에 대한 결과에서 부모에게 느끼는 소외감이 미국 청소년들보다 더 크다고 보고되었다. 가족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아직까지 한국의 아버지는 집 밖에 있는 시간이 많으며,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어머니도 직장을 가지게 되어 자녀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늘고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점점 더 부족해진다(김유숙, 2007). SBS 스페셜 '밥상머리에서 작은 기적을 이뤄보자'에 따르면 과거

에는 가족의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사회이슈에 이르기까지 대화로 이뤄진 가족식사는 많은 자녀를 보살피기 위한 부모의 고육지책이자, 아이의 사춘기까지 무난히 지내게 한 자리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다수 한국 청소년의 가정에서 학교나 학원공부를 위해 가족이 모여 대화하는 시간은 물론이고 식사를 위해 모이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부모와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부모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는 것이라 추측된다. 2008년 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의하면 약 70%의 우리나라 청소년이 하루 2시간 미만으로 대화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2009년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조사에서도 청소년 중 절반 이상이 자신의 고민에 대해 부모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다른 동양권 문화의 청소년들보다도 자신에 대한 부모의 이해도가 낮다고 평가했다. 본 연구에서 한국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들보다 부모에게 소외감을 더 많이 느꼈다는 결과를 뒷받침한다. 또래 애착과 관련된 결과를 보면 청소년기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전환기라는 발달학적 관점을 확신시켜준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보다 친구와 좀 더 긍정적이었던 연구결과(주은지, 2007)를 뒷받침한다. 청소년기는 부모와 친구들과의 관계가 바뀌는 민감한 전환기적 단계이다. 유안진과 연구자들(2006a)은 한국의 청소년들은 대학입시와 입시경쟁의 부담으로 친구들이 경쟁대상으로 여겨져 또래와의 애착이 낮았다고 보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와 반대로 또래에 대한 신뢰도도 높고 의사소통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시기에는 부모와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보다 상대적으로 친구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서 이들과의 관계가 청소년에게 중요한 영향을 준다(유안진 외, 2005). 즉, 한국의 청소년들이 학교와 사설학원 등에서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으므로 이들이 주된 대화상대가 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친구들이 새로운 관심 분야에서, 특히 이성과 연애 문제 따위를 털어놓을 수 있는 절친한 상담의 상대로서 기능하기 시작하면서(주은지, 2007) 이들에 대한 신뢰도와 의사소통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Furman과 공동 연구자들(Furman et al., 2002)의 연구 결과와 같이 청소년들이 부모와의 관계가 변해가기 시작하면서 좀 더 만족스러운 관계를 친구사이에서 찾기 시작한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반면에 미국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전반적인 애착정도가 한국 청소년들에 비해 높았다.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8세 - 21세가 되면 어떻게든 취직을 하고, 방을 얻어 경제적으로나 생활에서 독립했던 것이 과거 세대의 전통적인 성인 신고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와 함께 사는 소위 '캥거루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의 인구조사국과 미시간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이런 캥거루족이 1970년의 11%에서 2003년 20%로 늘어났고 18세 이상

자녀와 부모가 함께 사는 가구의 비율도 21%였다(조선일보, 2005.10.23). 이들은 부모와 함께 살면서 주거 문제의 해결,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이들을 신뢰하고 의사소통도 많이 하고 의존하게 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청소년기에도 부모가 이들에게 있어서 안전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세계를 넓혀 가는데 중요하다는 연구(고영남, 2008)를 지지한다.

셋째, 성별, 학교급, 부모의 결혼유형, 이성친구의 유무에 따른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의 차이를 본 결과 각각의 변인들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서 전체적인 부모에 대한 애착의 정도가 높았으며 남학생이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여학생보다 신뢰와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부모나 친구에게 더 깊은 애착관계를 형성한다고 보는 황창순(2006)의 연구와 부모 애착에 성별의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또래 애착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지각하고 있다는 고영남(2008)의 연구, 그리고 많은 선행연구(유안진 외, 2006a; 지수경, 2001; Armsden & Greenberg, 1987; Nada-Raja et al., 1992; Paterson et al., 1994)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또래와의 관계가 깊다고 보고한 연구들과는 상반되었다. 본 연구에서 애착에 성차가 나타난 것은 우정의 성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남학생은 여러 명의 친구들과 폭넓은 관계를 형성하고 이들과 다양한 활동, 특히 신체활동(운동)을 공유하며 또래관계를 형성하며 친구들과의 신뢰도도 높이고 의사소통도 많이 한다. 반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소수 또는 2인 관계에 더 몰입하며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며 또래 관계를 형성(유안진 외, 2006a)하나 비밀을 털어놓을 정도의 신뢰감을 갖지 못한다. 또한 '2009 아동·청소년통계'에 의하면 2009년 우리나라 중학생의 82%, 고등학생의 93%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고, 주요 사용 용도는 문자채팅이 72%였으며 음성통화는 11%정도에 달하지 않았다. 이 중 여학생의 문자채팅 사용이 남학생들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 여학생들의 휴대전화나 메신저 등의 기계를 통한 소통으로 인해 일대일의 의사소통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에서의 또래 애착 측정도구의 의사소통 문항들, "나는 걱정이 되는 일이 있을 때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 "나는 내 어려움이나 근심거리를 친구들에게 이야기한다.", 등은 이를 뒷받침한다. 이로 인해 또래관계에 부여하는 의미에 성차가 나타나고 특히 또래에 대한 애착에 성차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또래 애착이 높은 결과가 나타나 성별과 또래 애착에 대한 추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급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발달 단계에 따라 애착대상이 부모에게서, 친구, 로맨틱 파트너/

배우자 등으로 이동한다(전효정, 1999)는 애착의 전반적인 관점에서 벗어난다. 또한 이는 부모 애착에 있어서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던 육정(1998)의 연구와 상반된다. 하지만 또래 애착의 정도가 학년이나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던 연구(육정, 1998; 황창순, 2006)를 뒷받침하며,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또래에 대해 더 많이 애착을 형성하고 있다는 연구(유안진 외, 2006a)와도 차이가 있었다. 미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학교급보다는 연령을 사용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부모의 애착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낮아진다고 하였다(Montemayor, 1983).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과거에는 본격적인 입시경쟁이 고등학생 시절에 시작되었다면 이제는 초등학교 시기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초등학생과 대학생으로 확대하여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부모가 결혼이 아닌 유형으로 분류된 경우에 부모와의 애착정도가 높았고, 부모가 결혼한 경우에 또래와의 애착에서 높은 신뢰도와 의사소통 수준을 보였다. 이는 부모의 결혼유형과 애착간에 관계가 없다는 연구(Hazan & Shaver, 1987; Brennan & Shaver, 1993)와 부모가 결혼한 상태의 청소년들이 역시 부모와 긍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이와 반대로 부모의 별거, 이혼 등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부정적인 부모 관계를 형성한다는 선행연구(주은지, 2007; Summers et al., 1998; Woodward et al., 2000)를 거부한다. 한부모를 둔 청소년이 부모에 대한 애착이 더 깊었다는 결과는 이들이 남아있는 부모에 대한 염려·걱정, 동정 또는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추측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결혼한 부모를 둔 청소년들은 또래와의 애착을 더 긍정적으로 한다는 본 연구결과는 안정적인 부모와의 관계를 갖는 청소년들이 또래에 대해서도 높은 애착을 갖는 경향이 있다는 장휘숙(1997)의 연구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국 청소년 부모의 약 91%가 설문 당시 결혼한 상태인 반면 미국 청소년의 부모 중 45.7%가 별거, 이혼, 또는 사별하였다고 보고하였으므로 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가 요하다. 또한 부모의 결혼유형이 그 외로 분류된 경우 구체적으로 별거, 이혼, 또는 사별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추후 연구에서 필요하다.

이성친구가 없는 청소년들이 있는 청소년보다 또래에 대한 애착이 더 높아 이성관계의 여부가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에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고 보고한 연구(주은지, 2007)와 다르다. 이성친구가 있게 되면 상대적으로 친구에게 할애하는 시간도 줄어들어 관계가 소원해 질 수 있겠지만 이성친구가 없으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친구에게 많은 것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청소년의 82.5%가 이성친구가 없었으며 미국 청소년들의 50.6%가

이성친구가 있었다고 보고하였으므로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의 부모의 결혼유형과 이성관계의 유무에 따른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의 상호작용의 효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한국 청소년의 경우 부모가 결혼한 경우에 또래와의 의사소통이 더 긍정적이었으나 미국 청소년은 부모가 결혼한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또래와의 의사소통을 더 긍정적으로 하였다. 한국 청소년의 경우, 부모가 결혼한 경우 이들이 또래와의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유도하였으나, 미국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부재가 오히려 친구들과의 의사소통을 증진시켰다. 부모의 의사소통과 또래의 의사소통이 상관관계가 있는 본 연구결과를 볼 때, 결혼한 부모의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한부모의 청소년들보다 부모의 의사소통을 많이 보아왔고 친구와의 의사소통도 원활하게 하나, 반대로 한부모의 미국 청소년들은 그 부족한 의사소통을 친구들에게서 찾는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 청소년들은 이성친구가 없는 경우에 또래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았으나, 이와 반대로 미국 청소년들은 오히려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에 또래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았다. 미국의 16-18세 청소년들의 75%가 이성 관계를 경험(Teenage Research Unlimited, 2006) 했으며, 본 연구에서도 약 51%의 청소년들이 이성친구가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보아 대다수의 미국 청소년들이 이성친구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친구가 이성과의 관계, 연애 문제, 비밀 등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중요한 신뢰의 대상으로서 기능하기 시작(주은지, 2007)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 청소년들은 이성 친구가 있으면 친구가 아닌 이성 친구로 신뢰의 대상이 옮겨가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에서 나타난 차이는 상담장면에서 상담자가 내담자를 대할 때, 성별, 부모의 결혼 유형과 이성친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부모와 또래에 대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를 상담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은 몇 가지 점에서 문화적인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부모와 또래와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프로그램과 상담의 개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첫째, 연구자들, 교사들, 상담사들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긍정적인 또래 관계와 이성 관계를 가지게 될 밑받침이 되는 긍정적인 부모관계를 갖도록 하고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는 특히 한국 청소년들과 부모에게 그 의미가 클 것이라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서 발견하였다. 미국에는 부모-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 “Parent Adolescent Education Program(PAEP)”과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Education(PARE)”은 부모들과 자녀들이 청

소년기라는 여정을 잘 지나가게 유지시켜 주기 위해 생긴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모는 부모기술과 능력향상, 아이디어와 걱정거리를 공유하고,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업데이트하며 가족 간의 의사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한 사회-심리 발달을 하도록 돋는다. 한국에도 청소년기에 자칫하면 소원해질 수 있는 부모-자녀간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제작된다면 이는 긍정적인 또래와의 관계, 후에 이성 관계, 그리고 넓게는 일반적인 사회·대인관계에 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Furman & Simon, 1999).

둘째, 우리나라 교사와 교육자들은 긍정적인 또래 관계를 가지도록 조장해야 한다. 입시 위주의 우리나라 교육현실에서 친구를 경쟁자로 보는 것보다는 부모한테 할 수 없는 긴밀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친밀한 또래 관계가 훗날 긍정적인 성인 애착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사회관계에 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청소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증가된다. 또래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청소년은 더 불리한 입장에 있게 된다. 즉 친구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은 학교 내에서의 행동 불량, 약물남용, 성 경험 등 다른 분야에서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Cooper et al., 1998).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의사소통이나 사교적인 또래 관계를 맺는지 청소년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최적의 청소년 발달을 이루는 데 결정적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friend-to-friend” 프로그램과 “school-based mentoring” 프로그램은 결연으로 맺어진 학생들과 특별한 친구가 되어 관심을 가져주고, 다양한 활동(스포츠, 박물관 견학 등)을 같이 하고, 지지와 격려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춰서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고려되는 몇 가지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해 본다. 첫째, 연구 참가자들의 편의표집에 있다. 설문에 동의를 해 준 선생님들의 학생들만이 표집 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들로 일반화시킬 때 주의를 해야 한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성비와 인종의 불균형에 있다. 본 연구에서 한국 청소년은 남학생이, 미국 청소년은 여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미국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백인이었다. 이는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연구에서 남녀 성비와 인종의 균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자기보고식(self-report) 질문지 방식에 있다. 많이 쓰이는 방법이긴 하지만 보고한 사람이 가진 편견과 정직하기 못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Gay, 1996).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중·고등학생으로 제한하였으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대학생도 청소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나누어 비교하는 연구 또한 기대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들의 부모와 애착에 대한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미국의 청소년과 우리나라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또래 애착을 비교하였다. 두 가지 애착유형에서 미국 청소년과 한국 청소년 간의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이 결과는 어느 나라 청소년들이 더 안정적인 애착유형을 보이느냐 단순히 비교하여 그 우세를 가리는데 것이 아니라 한국의 청소년 애착 연구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세계화와 조기유학의 급증으로 많은 한국 청소년들이 미국에서 생활하는 실정으로 조금이나마 그 나라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를 돋는데 이 연구의 의의를 둔다.

【참 고 문 헌】

- 고영남(2008). 중학생의 부 애착, 모 애착, 또래 애착 및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열린교육연구*, 16(2), 111-131.
- 김경숙·박미금(1999).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생활만족 및 그 관련변인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2(1), 33-45.
- 김아름·이지희·최보영(2010). 중·고등학생의 진로성숙 발달에 관한 5년 종단연구: 성별 및 부모·또래와의 애착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843-862.
- 김영혜·이지연·김낭영(2009). 부모애착과 청소년의 걱정과의 관계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 검증. *아동교육*, 18(2), 91-104.
- 김유숙(2007). 가족상담. 학지사.
- 김정규(2009). 미국 청소년들의 또래 관계와 그 영향에 관한 연구. *현상과 인식*, 33, 225-285.
- 김정내·임성문(2007). 부모 및 또래애착과 대학생의 섭식장애 행동과의 관계: 자의식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4(5), 315-344.
- 박효희·성태제(2008). 성별 진로성숙도 변화에 있어 부모-청소년 자녀 유대가 미치는 종단적 매개효과 검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9(1), 117-142.
- 보건복지부(2008). 2008 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09). 2009 아동·청소년통계. 보건복지부.
- 송호창·오윤자(200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애착과 청소년의 비행.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2), 151-173.
- 옥정(1998). 청소년기 애착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안진·이점숙·김정민(2005). 신체상, 부모와 또래애착, 탄력성이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123-132.
- 유안진·이점숙·정현심(2006a). 또래 애착과 정서조절 양식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31-41.
- 유안진·이점숙·정현심(2006b). 정서조절 양식과 부모 애착이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7(1), 1-15.
- 이시은·이재창(2005). 대학생의 애착유형, 부모·또래 애착, 그리고 정서적 특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947-963.
- 장희숙(1997). 청년기 애착과 자아 존중감 및 자기 효능감의 관계. *한국인간발달학회: 인간발달연구*, 4(1), 88-106.
- 전효정(1999). 유아기 부모와의 애착경험이 성인기 애착유형과 배우자 성택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보육연구*, 5, 21-34.
- 조선일보(2005). 미국엔 캠거루죽 적다더니...2005.10.23.
- 주은지(2007). 미국 청소년의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 미혼모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4), 101-112.
- 주은지(2009). Romantic attachment of American and Korean adolescents. *인간과 사회*, 28, 189-214.
- 지수경(2001). 청소년의 애착과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9). 2009년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황창순(2006). 초기 청소년기의 부모 및 또래 애착과 애착의 변화. *한국청소년연구*, 17(1), 201-225.
- Armsden, G. C. & Greenberg, M. T.(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Lawrence Erlbaum, Oxford, England.
- Bartholomew, K.(1990). Avoidance of intimacy: An attachment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7, 147-178.
- Bowlby, J.(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Basic Books.
- Bradford, E. & Lyddon, W. J.(1994). Assessing adoles-

- cent and adult attachment: An updat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3(2), 215-219.
- Brennan, K. A. & Shaver P. R.(1993). Attachment styles, self-esteem, and patterns of seeking feedback from romantic partner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 23-31.
- Buhrmester, D. & Carbery, J.(1992, March). *Daily patterns of self-disclosure and adolescent adjustment*.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Adolescence, Washington, D.C.
- Chadwick, B. A. & Heaton, T. B.(1996). *Statistical Handbook on Adolescents in America*. Phoenix, AZ: Oryx.
- Claes, M.(1992). Friendship and personal adjustment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15, 39-55.
- Cooper, M. L., Shaver, P. R., & Collins, N. L.(1998). Attachment styles, emotion regulation, and adjustment in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380-1397.
- Cotterell, J. L.(1992). The relation of attachments and support to adolescent well-being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7, 28-44.
- Cross, S. E. & Madson, L.(1997). Models of self: Self-construal theory and gender. *Psychological Bulletin*, 122, 5-37.
- Ducharme, J., Doyle, A., & Markiewicz, D.(2002). Attachment security with mother and father: Associations with adolescents' reports of interpersonal behavior with parents and peer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9, 203-231.
- Furman, W. & Buhrmester, D.(1992). Age and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networks of person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3, 103-115.
- Furman, W. & Simon, V. A.(1999). Cognitive representations of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s. In W. Furman, B.B. Brown., & C. Feiring(Eds.). *The development of romantic relationships in adolescence*(pp. 75-98).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urman, W., Simon, V. A., Shaffer, L., & Bouchey, H. A.(2002). Adolescents' working models and styles for relationships with parents, friends, and romantic partners. *Child Development*, 73(1), 241-255.
- Gay, L. R.(1996).(5th Ed). *Educational research: Competencies for analysis and applica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 Greenberg, M. T., Siegel, J. M., & Leitch, C. J.(1983). The nature and importance of attachment relationships to parents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2, 373-386.
- Hay, I. & Ashman, A. F.(2003). The development of adolescents' emotional stability and general self-concept: The interplay of parents, peers, and gender.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bility, Development, and Education*, 50, 78-91.
- Hazen, C. & Shaver, P.(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Joo, E.(2005). *Attachment styles of female parenting and nonparenting adolescent*.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 Joo, E.(2007). Romantic attachment of american adolescents: Comparison of parenting and nonparenting adolescents. *Journal of Korea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s*, 12(2), 131-148.
- Laible, D. J., Carlo, G., & Raffaelli, M.(2000). The differential relations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to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 45-59.
- Larson, R. W., Monneta, G., Richards, M. H., & Wilson, S.(2002). Continuity, stability and change in daily emotional experience across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3, 1151-1165.
- Larson, R. & Richards, M. H.(1991). Daily companionship in lat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Changing developmental contexts. *Child Development*, 62, 284-300.
- Larson, R. W., Richards, M. H., Moneta, G., Holmbeck, G., & Deckett, E.(1996). Changes in adolescents' daily interactions with their families from ages 10 to 18: Disengagement and transform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2, 744-754.
- Lee, Hae-young & Hughey, K. R.(2001). The relationship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to the career maturity of college.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7(4), 279-293.
- McCormick, C. B. & Kennedy, J. H.(1994). Parent-child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self-esteem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

- 1-18.
- Ma, C. Q. & Huebner, E. S.(2008). Attachment relationships and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Some relationships matter more to girls than boys. *Psychology in the Schools, 45*(2), 177-190.
- Montemayor, R.(1983). Parents and adolescents in conflict: All families some of the time and some families most of the tim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 83-103.
- Nada-Raja, S., McGee, R., & Stanton, W. R.(1992). Perceived attachments to parents and peer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 471-485.
- Nelis, S. M. & Rae, G.(2009). Brief report: Peer attachment i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32*, 443-447.
- Paterson, J., Pryor, J., & Field, J.(1995). Adolescent attachment to parents and friends in relation to aspects of self-esteem.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4*, 365-376.
- Raja, N. S., McGee, R., & Stanton, W. R.(1992). Perceived attachments to parents and peer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 471-485.
- Savin-Williams, R. C. & Berndt, T. J.(1990). Friendship and peer relations. In S. S. Feldman & G. E. Elliott (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SBS. 밥상머리에서 작은 기적을 이뤄보자. SBS 스페셜. 2009.7.26.
- Summers, P., Forehand, R., Armistead, L., & Tannenbaum, L.(1998). Parental divorce during early adolescence in Caucasian families: The role of family process variables in predicting the long-term consequences for early adult psychosocial adjust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2), 327-336.
- Teenage Research Unlimited(2006). *Teen Relationship Abuse Survey*. Liz Claiborne Inc.
- Wang, A., Peterson, G. W., & Morphey, L. K.(2007). Who is more important for early adolescents' developmental choices? peers or parents? *Marriage & Family Review, 42*(2), 95-122.
- Woodward, L., Fergusson, D. M., & Belsky, J.(2000). Timing of parental separation and attachment to parents in adolescence: Results of a prospective study from birth to age 16.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162-174.
- Youniss, J. & Smollar, S.(1985). *Adolescent relations with mothers, fathers and friend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접수일 : 2010년 09월 15일
 심사일 : 2010년 10월 26일
 심사완료일 : 2010년 12월 15일